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1/ 29 통권 165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미(美)는 힘(力)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상반기 6개월 가결산 중간예납방법〉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1.1.~12.31)	법인(주로 12월말 법인)
중간예납 규정	소득세법 제65조	법인세법 제63조
대상소득범위	사업소득임(근로소득, 금융소득, 3.3% 사업소득 등은 제외)	모든 법인 해당
중간예납기일	매년 11월 30일(모두 동일)	주로 매년 8월 31일(결산기일부터 8개월)
중간예납기준액	(전년중간예납 + 확정자납 등) × 1/2	(전년 법인세액 - 감면 - 원천징수) × 6 / 전년도 사업월수
6개월 가결산	상반기 손익 약화시 6개월 가결산의 1년 환산소득 × 누진세율 × 1/2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좌동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 신고	전년도 반 납부액이 계산되거나, 가결산도 전자신고함	좌동(전자신고해야 관할세무서가 50만원 미만인지 판단가능)
중간예납 기준액 미달	산출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적용(소득세법 제86조) : 세무서가 납부통지 안함	전년도의 반납이나, 6개월 가결산결과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납부면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분납가능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이나 50%가 자동분납 고지됨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중간예납 1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이나 50% 분납가능 (법인세법 제64조 제4항)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1호 / 주간 48호

2023. 11. 29.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상반기 6개월 가결산 중간예납방법	표지
C E O 에 세 이	미(美)는 힘(力)이다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해외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 주식선택권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더 커진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연말정산 혜택 - 운용수익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 기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제18조) - 금융권 고금리 적금상품	8 9
직장인 Survival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가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 조모, 부친, 자녀 순으로 재산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42, 2023.04.10)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3
마케팅 Tax consulting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12
세무정보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4 17 27
회계정보	-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31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 미(美)는 힘(力)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흔히 수원성이라고도 하는 화성은 18세기말 정조대왕 시절 건축된 성채다. 동양 성곽의 백미, 또는 18세기 실학의 결정체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조의 아버지는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였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항상 슬퍼했다. 그는 선친의 무덤을 경기도 양주에서 지금의 화성시 화산으로 옮기면서 새 도시를 만들었다. 서울을 지키는 중요지점에 행궁을 포함한 새 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정치력의 한계로 못 다 이룬 개혁을 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로 이룩해 보려는 정조의 의도가 낡은 결과물로 화성을 보기도 한다.

당시 다산 정약용은 화성 축조를 위해 거중기 등을 고안해서 활용기도 했다. 이렇듯 화성은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성과물이었다. 축성 시 모든 것을 간간하게 챙기는 정조를 향해 신하들의 불만도 컸다.

“목숨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 성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려 합니까?”

정조는 일갈했다.

“아름다움이 바로 힘이 아닌가!”

아름다움은 힘이고 경쟁력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노력없이 창조도 감상도 불가능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知則爲眞看)”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머리말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조때의 문장가인 유한준(俞漢鵠)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의 화첩 ‘석능화원’에 부친 발문에서 따온 것이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창조자의 것인 동시에 감상자와 소비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도자기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도자기는 음식을 담는 기능을 뛰어 넘어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덮은 최대의 교역상품이었다.

한국의 행남자기와 한국 도자기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세계시장을 뚫고 있다.

삼성그룹의 故 이건희 회장은 일찍부터 ‘신경영’을 주창했다. 과거의 양(量)위주에서 질(質)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창조경영’을 외쳤다. “20세기 경영과 21세기 경영은 다르다. 21세기엔 디자인 마케팅 연구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아름다움에 기꺼이 댓가를 지불하며 열광한다. 명품 가방, 악세사리는 물론 스마트폰, 자동차, 하다못해 이젠 냉장고와 세탁기까지도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이나 특이한 소리가 감성적 소비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TV광고 중에서 80%가 어떤 형태로든 음악을 사용했다는 조사가 있다.

펄시 콜라의 청량감 넘치는 병 따는 소리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졌다. 상쾌하고 오묘한 병 따는 소리는 사실 여러개의 콘돔을 겹쳐서 풍선처럼 부풀린 후 짧은 순간 그것을 담뱃볼로 터트린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지만 외양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음악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해도 기업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괴물일 뿐이다. 적하면 비자금과 분식회계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CEO를 보면 더욱 그렇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7일 (금)	11월 20일 (월)	11월 21일 (화)	11월 22일 (수)	11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303.90	1294.40	1292.40	1287.70	1295.70
일	본	엔	(JPY)	865.29	864.58	871.89	869.57	866.54
영	국	파	운 드	(GBP)	1618.86	1612.63	1617.05	1614.97
캐	나	다	달 러	(CAD)	948.02	943.58	941.85	940.00
홍	콩	달	러	(HKD)	167.12	166.04	165.85	165.18
중	국	원	(CNH)	179.49	178.38	179.57	180.22	181.31
유	로	화	(EUR)	1415.25	1412.26	1414.40	1405.46	1410.69
호	주	달	러	(AUD)	843.69	843.75	848.27	844.41
싱	가	폴	달 러	(SGD)	968.11	963.38	966.21	962.4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11	276.58	276.89	276.75
							276.75	276.981

## 해외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Q** 해외 Global Agency인 A사에서 저희 회사로 카드결제를 통해 대납을 하고 A사에서 B사로 대금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B사에서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결제건에 대해 카드 매출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조정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카드매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카드매출 제외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청해오면 중복매출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 Q**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81.03.01~84.02.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84.03.01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사학연금 가입이 된 직원이 23.02.28에 퇴직했을 때  
정규직 재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과거 3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근속연수를 81.03.01~23.02.28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1.03.01~84.02.28로 봐야하나요? 노무법인에 퇴직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하여 최근 3개월치의 정규직 급여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허나 근속연수는 3년(계약직 근무기간), 42년(계약직+정규직 근무기간), 39년(정규직 근무기간)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A**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81.3부터 ~23.228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주식선택권

**Q** 비상장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데 7월에 발생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에 한 번 더 발생할 경우 발생분에 대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2월에 받은 평가 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의 발생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월 발행분에 대해 11월평가 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차후 과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물론 소득·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세청의 자동검증자료가 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인정에 증빙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계산서가 소득·법인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 물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장치이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증빙서류이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매입세액공제 증빙의 기능은 물론 소득·법인세법의 근거과세자료로서 기능, 각종 비용인정 증빙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공제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가 이루어져야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급 시기 도래 전에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계속적인 거래처인 경우 발급편의를 위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그냥 계산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서 매출부가세가 없다. 결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년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규정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누구라도(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3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에 따라 미제출액 $\times 1\%$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더 커진 연금저축 · 개인형 IRP의 연말정산 혜택

2022.12.31.까지				2023.1.1.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이하 (1억원)	(400만원)	(600만원)	1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좌 동)			



## 운용수익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연금수령시기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가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가액
  - 2017. 1. 1.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계산
- 부수토지의 범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를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다음에 따른 배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 금융권 고금리 적금상품

금융기관	적금	최고금리(%)	납입한도	만기	우대조건
광주은행	행운적금	13.2	50만원	12개월	추첨
신한은행	신한 럭키드로우	12	30만원	6개월	-
웰컴저축은행	웰빙워킹적금	10	20만원	12개월	걸음수 달성
서울 관악신협	특판적금	10	제한없음	12개월	없음
서울 남서울신협	유니온적금	7.5	제한없음	12개월	없음



##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외다리 세일즈 왕으로 불리는 조용모 씨는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여 5급 사무관에 합격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27세에 예기치 않은 뺑소니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던 그였기에 절망감은 더 컸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고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무려 110곳에 원서를 내고 거절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110번째 원서를 낸 한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어렵게 시작한 제2의 인생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두 다리가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영업인데 장애인이 하겠어?”라는 사람들의 우려의 시선과 냉대도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기에 발이 부르뜨도록 뛰어다녔고, 그의 피와 땀은 마침내 결실로 나타나 최고의 세일즈맨, 최고의 명강사가 되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보다 내 사업을 할 때 의욕이 넘치듯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삶이 흥겨워지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마음이 샘솟는다. 또한 주인의식이 있으면 중심이 서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 최 신 판 례 예 규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 Ⅰ 질 의

-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서면부동산-4364, 2023.03.13

## Ⅰ 질 의

- 1)쟁점주택의 일부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 종부령 §4①(8)에 따

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쟁점주택의 일부가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부령 ②에 따라 감면되는 주택의 범위

## Ⅰ 회 신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모, 부친, 자녀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42, 2023.04.10

### ■ 질 의

- 조모, 부친, 신청인 순으로 재차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직전전 피상속인(조모)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나 직전 피상속인(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모(☑)로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함)를 다시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모(☑)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나, 부친(☑)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일이 사업인

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4052, 2023.05.24

### ■ 질 의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영 제88조 제1항 제8조의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시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절감세액은 평균 등록금을 감안하면 120만원에 달한다.

### 내년 보유세도 다주택자 혜택 유지... 공정비율공시가격 동결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자산 풀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풀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다.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목표치 74.7%에서 63.5%로 11.2%p,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6.8%p로 줄었다. 반면 아파트는 목표치 72.7%에서 69.0%로 3.7%p 줄었다.

### 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3. 11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 1. 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 ·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①

### 연말정산 실무자

- ☐ 자동차 제조업 연말정산 담당
  - 연말정산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A매니저
    -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보내주므로 제출을 독촉할 필요가 없이 제공 동의 방법만 알려주면 되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었다.
- ☐ 군부대 연말정산 담당
  - 혹한기 훈련으로 간소화자료를 취합하는데 애를 먹었던 B팀장
    - 자료 취합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공제요건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고,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대상자도 많이 줄어 업무량도 축소되었다.

## 사례 ②

###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 과장

- 해외 출장 중 간소화자료 PDF파일 업로드가 안 돼 포기한 C과장
  - 어쩔 수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미리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동의를 한 덕에 PDF파일을 업로드할 필요 없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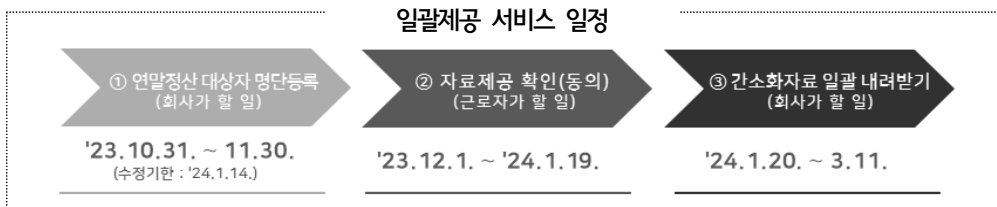
-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

력하면 됩니다.

-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는 '23. 12. 1.부터 '24. 1. 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
  -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 참 고

##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꼼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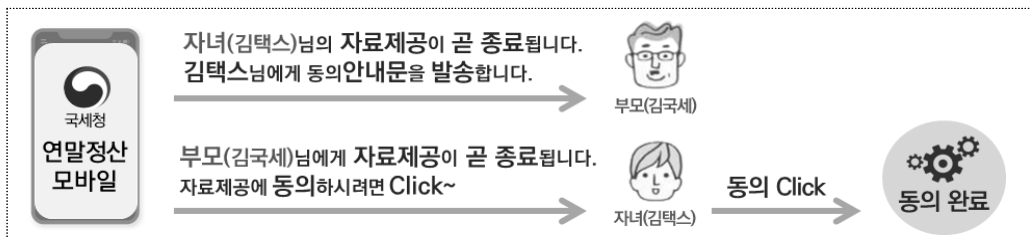


##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 ②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분께서는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 및 동의 방법
  - ① 부모 :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에게 동의안내문이 발송됨을 알림
  - ② 자녀 : 자료제공 종료 안내 → 모바일에서 동의절차 완료



- 절감세액 계산 사례 :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
  - 자녀 인적공제 10만 원 : 150만 원 × 6.7%(실효세율)
  -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101만 원 : 687만 원('23년 평균 대학등록금) × 1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 국세청, 2023. 11

##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함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 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3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



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4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원천세과-480, 2012.9.13.)

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규-42, 2013.1.16.)

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 ~ 2019.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유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7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8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재소득-163, 2013.4.1.)

10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4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서면법규-24, 2014.1.13.)

15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3, 2012.10.11.)

16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471, 2013.9.6.)

17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 2012-213, 2012.5.31.)



18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 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19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2.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에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13.7.1

-> 2022년부터 감면 적용 시에는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 : 2022.4.1

20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한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5년 4월 ~ 2020년 4월) 소득에 대해 감면

21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18.1.31까지 (청년의 경우 2015.1.1.~ 2020.1.31.까지)입니다.

2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2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 중 근로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2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6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27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9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 ~ 2021년 6월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1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원천세과-428, 2012.8.17.)

32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3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4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가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 지방세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 2023. 11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용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 '23.11.14.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5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http://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 '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 \*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 일반 수입품 등
  -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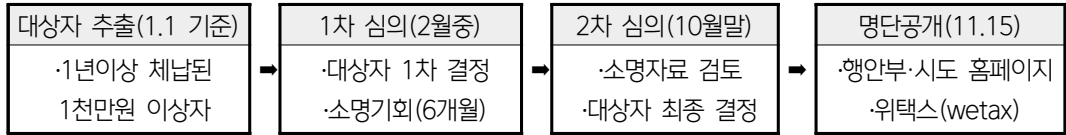
## 참고 1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
    - (공개주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국 합산된 체납액 공개
      - ※ '21년부터 광역 합산·'22년부터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대상에 포함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

- 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참고2

'23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3. 11. 14.(화) 18:00 기준

①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합계	인원	8,795	2,829	5,966	933	160	773
	체납액	382,079	134,791	247,287	68,642	27,976	40,666
1천만초과 ~ 3천만이하	인원	5,800	1,806	3,994	553	61	492
	체납액	104,314	32,495	71,818	9,212	1,032	8,180
3천만초과 ~ 5천만이하	인원	1,391	459	932	139	26	113
	체납액	53,413	17,712	35,701	5,297	978	4,319
5천만초과 ~ 1억이하	인원	990	332	658	125	28	97
	체납액	68,821	23,066	45,755	8,665	1,954	6,711
1억 초과 ~ 3억 이하	인원	497	180	317	81	26	55
	체납액	79,465	28,724	50,741	13,809	4,443	9,366

3억 초과 ~ 5억 이하	인원	74	30	44	15	6	9
	체납액	27,358	11,165	16,192	5,538	2,141	3,397
5억 초과 ~ 10억 이하	인원	34	15	19	10	8	2
	체납액	22,619	9,285	13,333	7,296	6,241	1,055
10억 초과	인원	9	7	2	10	5	5
	체납액	26,085	12,341	13,744	18,825	11,187	7,638

## ②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5,966	405	1,229	2,011	1,608	494	219
	금액	247,287	13,287	59,526	76,021	69,610	19,565	9,275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인원	773	21	94	202	253	143	60
	금액	40,666	1,775	5,520	10,263	12,993	7,579	2,536

#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국세청, 2023. 11

## < 주요 내용 >

### 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전체 회계법인(220개)의 매출액은 5.7조원으로 전기보다 11.9%(0.6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회계감사) 1.9조원으로 지속 증가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경영자문) 2.0조원으로 증가율은 크게 감소\*(M&A 감소 등)

-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세무자문) 1.5조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9.9%(FY20) → 10.1%(FY21) → 13.3%(FY22)

- (영업이익) 1,616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20.1%)

- \* 인건비·지급수수료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증가 등에 기인

- 외부감사 실적은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12.6% 증가하였고,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4.0% 증가하여 안정화\*되는 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21.2%(FY20) → 3.1%(FY21) → 4.0%(FY22)

-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95건, 5,243억원\*이며, 사업연도중 실제 배상금액은 386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FY20 5억원, FY21 4억원)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등

### 2.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

- 회계법인의 성장세 둔화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 체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연차 회계사 관리, 일관성 있는 보수 책정,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점검, 비감 사업무 독립성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

## I

##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내용

- (회계법인 수) 전체 220개로 전기말보다 11개 증가,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대형)은 20개, 40~99명(중형)은 26개, 40명 미만(소형)은 174개
- (매출액) 총 5.7조원으로 전기보다 0.6조원(11.9%)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4.3조원(비중 76.6%), 4대법인은 2.8조원(49.5%)
  - 부문별 매출액은 경영자문 2.0조원(비중 35.2%), 회계감사 1.9조원(33.9%), 세무자문 1.5조원(27.7%), 기타 0.2조원(3.3%)
- (영업이익) 총 1,616억원으로 전기보다 407억원(△20.1%) 감소하였으며, 특히 4대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582억원(△62.9%) 감소
- (감사실적\*)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3,626건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18,969건(58.4%), 4대법인은 4,269건(13.1%)
  - \* 개별재무제표 감사실적(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포함)
- (감사보수\*)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4.0%)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화되는 추세
  -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소송현황)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총 95건, 소송금액은 5,243억원\*으로 전기보다 651억원 감소하였고, 패소 등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386억원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등

## II

## 시사점

- ① 회계법인 매출은 증가추세이나 영업이익은 큰 폭 감소
  - 新외감법 시행 및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 등으로 외부감사부문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감사부문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 전체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한편,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
- \* 인건비 : 33,082억원(FY21) → 37,116억원(FY22)
- \*\* 영업이익 : 1,787억원(FY20) → 2,023억원(FY21) → 1,616억원(FY22)

⇒ 향후 회계법인의 수익성 감소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

## ② 회계법인의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저연차 회계사가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 등록회계사의 89.2%가 근무
- 숙련도 부족에 따라 회사의 수검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일부 불만도 제기

⇒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③ 부실감사 관련 책임 확대

-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지속 제기되고 실제 부실감사관련 책임이 현실화

⇒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배상능력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 ④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4대 회계법인의 증가율\*이 높았음
- \* 4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 전년대비 증가율 : 8.9%

⇒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⑤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품질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바, 충실하고 정확한 작성·공시 필요



⇒ 외주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등을 하는 경우 주식공시를 정확히 할 필요\*

\* 과거 지적사례 : 회계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기업 관련 자금대여, 채권·채무잔액, 매입내역 등을 주석으로 미공시

#### ⑥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무 수행시 위험평가 등 점검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중 비중은 2021회계연도부터 감사부문 매출비중을 상회

\* FY22 부문별 매출비중 : 경영자문 35.2%, 감사 33.9%, 세무 27.7%

⇒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2022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I

####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3월말 결산법인은 '23.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20개)은 '23.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 1. 회계법인 일반현황

가. 회계법인 수 : 총 220개 (+11개)

- '23.3월말 현재 회계법인(금융위원회 등록)은 220개로 전기보다 11개 증가\*

\* 증가 11개(호수, 경북, 진평, 권, 윤솔, 혜성, 예광, 송정, 바로, 진산, 정후 신설)

- 규모별로는 소속 회계사가 100명 이상(대형법인)은 20개, 40~99명(중형)은 26개, 40명 미만(소형)은 174개\*

\* 신설 11개사는 모두 소형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하 '등록법인')은 전기보다 1개 증가(보현)하였으며, 등록법인은 대형(19개)과 중형(22개)에 분포

\* 상장회사 감사를 위해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공인회계사 수 최소 40명(지방 20명) 이상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이하 '일반법인')은 179개로 대부분 소형임 (대형 1개, 중형 4개, 소형 174개)

<소속 등록회계사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FY20		FY21 (A)		FY22 (B)		전기대비 변동 (B-A)
소속	100명 이상	19	(18)	20	(19)	20	(19)	-
등록	40 ~ 99명	25	(22)	24	(21)	26	(22)	2
회계사	40명 미만	151	(-)	165	(-)	174	(-)	9
전체		195	(40)	209	(40)	220	(41)	11

\* ( )는 등록법인

나. 등록회계사 : 총 25,084명 (회계법인 소속 14,805명, 비중 59.0%)

- (등록회계사 분포) 등록회계사는 전체 25,084명으로 전기보다 1,146명(+4.6%) 증가
  - 이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전체의 59.0%인 14,805명으로 전기보다 1,068명 (7.8%) 증가
  - 등록법인 소속은 11,750명으로 전기보다 926명(+8.6%) 증가
  - 4대법인 소속은 6,822명으로 전기보다 522명(+8.3%) 증가하여 전체 대비 비중은 46.1%로 전기보다 0.2%p 증가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 증감
회계법인 소속	13,004	56.9	13,737	57.4	14,805	59.0	1,068	7.8	1.6
등록법인(41사)	10,335	(79.5*)	10,824	(78.8*)	11,750	(79.4*)	926	8.6	0.6
4대법인	6,135	(47.2*)	6,300	(45.9*)	6,822	(46.1*)	522	8.3	0.2
총 등록회계사	22,861	100.0	23,938	100.0	25,084	100.0	1,146	4.6	

\*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및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4대법인별로는 삼일\*(+299명, +13.2%), 안진(+91명, +9.1%)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

\* 퇴사율 감소와 경력직 채용 등에 기인

## &lt;4대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gt;

(단위 : 명, %, %p)

구분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증감
삼일	2,272	36.1	2,571	37.7	299	13.2%	1.6
삼정	1,910	30.3	1,986	29.1	76	4.0%	△1.2
한영	1,113	17.7	1,169	17.1	56	5.0%	△0.5
안진	1,005	16.0	1,096	16.1	91	9.1%	0.1
합계	6,300	100.0	6,822	100.0	522	7.7%	-

- (경력별 현황)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4,540명(30.7%)이고, 이들 중 등록법인 소속은 3,011명(66.3%), 4대법인 소속은 828명임
- 4대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57.8%)를 차지하는 반면, 4대법인 외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는 9.7%에 불과

## &lt;경력별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gt;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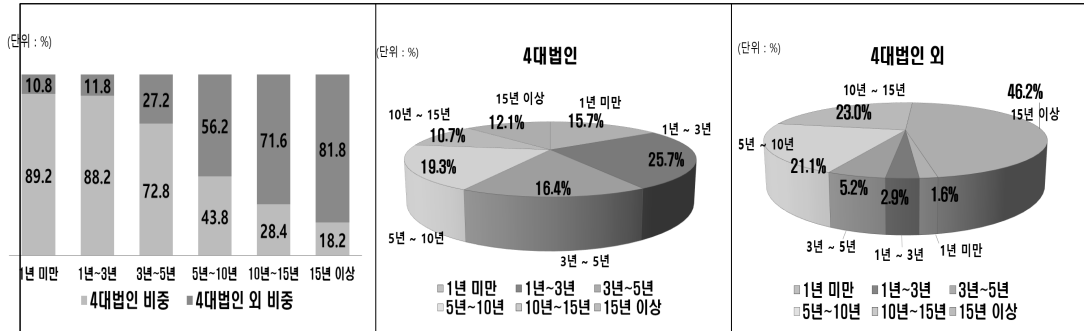
구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년이상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수	1,197	1,990	1,537	3,010	2,583	4,540
등록법인 (비중*1)	1,179 (98.5)	1,927 (96.8)	1,404 (91.3)	2,436 (80.9)	1,794 (69.5)	3,011 (66.3)
4대법인 (비중*1)	1,068 (89.2)	1,756 (88.2)	1,119 (72.8)	1,318 (43.8)	733 (28.4)	828 (18.2)
4대법인 외*2 (비중*1)	129 (10.8)	234 (11.8)	418 (27.2)	1,692 (56.2)	1,850 (71.6)	3,712 (81.8)
경력별 구성비*3	8.1	13.4	10.3	20.3	17.4	30.6
등록법인	10.0	16.4	11.9	20.7	15.3	25.6
4대법인	15.7	25.7	16.4	19.3	10.7	12.1
4대법인 외*2	1.6	2.9	5.2	21.1	23.0	46.2

\*1 회계법인 소속 경력별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4대법인 및 그 외 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2 4대법인 외 등록법인 + 일반법인의 합산

\*3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총원 중 각 경력구간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 <회계법인 등록회계사 구성>



- 한편,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는 1,232명이며, 이 중 4대법인 소속은 1,189명(97%)으로 전기(1002명, 87%)보다 증가
  -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 후 등록 가능
- 4대법인을 제외한 법인에서 43명(4대법인 외 등록법인 35명 및 일반법인 8명)이 실무수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구성 현황)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중 이사는 3,795명(비중 25.6%)으로 전기(3,535명, 25.7%)보다 260명 증가(△0.1%p)
  -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법인의 이사 비율(이사/등록회계사, 15.3%)이 일반법인(65.3%)보다 현저히 낮음
    - ※ 등록법인의 경우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명의 이사가 다수의 회계사를 활용하여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인함
  - 회계법인 소속 총인원\*은 32,336명으로, 그 중 공인회계사(수습 포함)가 49.6%이고 공인회계사 외 인력은 50.4%로 비중이 비슷함
    - \* 등록, 수습회계사 외 변호사, 세무사, IT 전문가 등 전문가, 그 밖의 일반직원으로 구성
  - 그중 4대법인의 공인회계사 비중(59.8%)이 일반법인(29.8%)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일반법인은 공인회계사 외 인력비중이 높음

### <회계법인 인력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등록회계사				수습 회계사 (C)	총회계사		기타 인력		총원 (F)
	(A)	이사 (B)	이사비율 (B/A)	전기		(수습 포함) (D=A+C)	비중 (D/F)	(E)	비중 (E/F)	
등록법인(41사)	11,750	1,801	15.3	15.4	1,224	12,974	58.8	9,084	41.2	22,058
4대법인	6,822	524	7.7	7.5	1,189	8,011	59.8	5,396	40.2	13,407
4대법인외(37사)	4,928	1,277	25.9	26.3	35	4,963	57.4	3,688	42.6	8,651
일반법인	3,055	1,994	65.3	64.2	8	3,063	29.8	7,215	70.2	10,278
전체 회계법인	14,805	3,795	25.6	25.7	1,232	16,037	49.6	16,299	50.4	32,336



## 2. 회계법인 영업현황

가. 전체 매출액 : 총 5조 7,015억원 (+11.9%)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5조 7,015억원으로 전기(5조 972억원) 보다 6,043억원 (+11.9%) 증가

○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2조 41억원(35.2%), 회계감사 1조 9,335억원(33.9%), 세무 1조 5,783억원(27.7%), 기타 1,856억원(3.3%) 順

○ 경영자문부문 매출은 전기(1조 8,494억원)보다 1,547억원 증가(+8.4%)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M&A 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특히, 4대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13.7%)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회계감사부문 매출은 외부감사대상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확대\* 등으로 전기(1조 6,575억원)보다 2,760억원(+16.7%) 증가

\* '22사업연도부터 자산 1천억원이상~5천억원미만 회사 포함

- 감사부문 매출은 4대법인(+15.6%) 및 그 외 등록법인(+18.1%) 및 일반법인(+16.4%)의 증가율이 고르게 나타남

○ 세무부문 매출은 경정 및 불복청구 관련 용역, 세무조정 업무 증가 등으로 전기(1조 3,936억원)보다 1,847억원(+13.3%) 증가

###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전체 회계 법인	감 사	14,838	34.0	16,575	32.5	19,335	33.9	2,760	16.7	1.4
	세 무	12,662	29.0	13,936	27.3	15,783	27.7	1,847	13.3	0.3
	경영자문	14,362	32.9	18,494	36.3	20,041	35.2	1,547	8.4	△1.1
	기 타	1,778	4.1	1,967	3.9	1,856	3.3	△111	△5.6	△0.6
	합 계	43,640	100.0	50,972	100.0	57,015	100.0	6,043	11.9	-

나. 등록법인 매출액 : 4조 3,679억원 (+12.1%)

□ 등록법인의 매출은 4조 3,679억원으로 전기보다 4,698억원(+12.1%) 증가하였으며,

○ 업무별로는 회계감사(2,359억원, +16.7%)와 세무(1,086억원, +13.8%)의 증가율이 높음

□ 등록법인의 매출 점유율(비중)은 76.6%로 전기(76.5%)보다 0.1%p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영자문이 비중이 0.4%p 증가한데 기인

<등록법인 업무별 매출>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등록 법인	감 사 (점유율)*	12,612 (85.0)	37.9	14,110 (85.1)	36.2	16,469 (85.2)	37.7	2,359 (0.1)	16.7	1.5
	세 무 (점유율)*	7,268 (57.4)	21.9	7,883 (56.6)	20.2	8,969 (56.8)	20.5	1,086 (0.2)	13.8	0.3
	경영자문 (점유율)*	12,666 (88.2)	38.1	16,252 (87.9)	41.7	17,699 (88.3)	40.5	1,447 (0.4)	8.9	△1.2
	기 타 (점유율)*	692 (38.9)	2.1	735 (37.4)	1.9	542 (29.2)	1.3	△193 (△8.2)	△26.3	△0.6
	합 계 (점유율)*	33,239 (76.2)	100.0	38,981 (76.5)	100.0	43,679 (76.6)	100.0	4,698 (0.1)	12.1	-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다. 4대법인 매출액 : 2조 8,219억원 (+11.4%)

□ 4대법인 매출액은 2조 8,219억원으로 전기보다 2,882억원(+11.4%)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전기(49.7%)보다 소폭 감소(△0.2%p)

<4대법인(전체) 업무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4대 법인	감 사 (점유율)*	7,193 (48.5)	33.1	7,999 (48.3)	31.6	9,250 (47.8)	32.8	1,251 (△0.4)	15.6	1.2
	세 무 (점유율)*	4,383 (34.6)	20.3	4,676 (33.6)	18.5	5,357 (33.9)	19.0	681 (0.4)	14.6	△0.5
	경영자문 (점유율)*	10,040 (69.9)	46.4	12,662 (68.5)	50.5	13,611 (67.9)	48.2	949 (△0.6)	7.5	△1.7
	합 계 (점유율)*	21,617 (49.5)	100.0	25,337 (49.7)	100.0	28,219 (49.5)	100.0	2,882	11.4	-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4대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4대법인 중 매출액은 삼일(9,722억원)이 가장 크고, 매출증가율은 감사 및 경영자문의 매출 증가로 한영(+15.7%)이 가장 높음
- 업무별 매출 증가율은 감사부문은 안진(+17.6%), 세무부문은 삼일(+16.0%), 경영자문부문은 한영(+15.8%)이 가장 높음

## &lt;4대법인(개별) 업무별 매출액&gt;

(단위 : 억원, %)

구분	감 사			세 무			경영자문			합 계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삼일	2,861	3,305	15.5	2,169	2,517	16.0	3,856	3,901	1.2	8,886	9,722	9.4
삼정	2,147	2,444	13.8	1,124	1,302	15.8	4,339	4,655	7.3	7,610	8,401	10.4
한영	1,757	2,050	16.7	531	594	12.0	2,077	2,404	15.8	4,364	5,048	15.7
안진	1,234	1,452	17.6	852	945	10.8	2,391	2,651	10.9	4,477	5,047	12.7
합계	7,999	9,250	15.6	4,676	5,357	14.6	12,662	13,611	7.5	25,337	28,219	11.4

라. 회계법인 영업이익 : 1,616억원 (△20.1%)

-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총 1,616억원으로 전기(2,023억원) 보다 407억원(△20.1%) 감소
- 4대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582억원(△62.9%) 감소하였으나, 이외 등록법인 및 일반법인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각각 111억원(+21.3%), 64억원(+11.1%) 증가

## &lt;회계법인 영업이익&gt;

(단위 : 억원, %, %p)

구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영업 이익률	금액 (A)	영업 이익률 (a)	금액 (B)	영업 이익률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영업 이익률 증감 (b-a)
등록법인(41사)	1,326	4.0	1,447	3.7	976	2.2	△471	△32.6	△1.5
4대법인	894	4.1	926	3.7	344	1.2	△582	△62.9	△2.5
4대법인외(37사)	432	3.7	521	3.8	632	4.1	111	21.3	0.3
일반법인	461	4.4	576	4.8	640	4.8	64	11.1	0.0
전체 회계법인	1,787	4.1	2,023	4.0	1,616	2.8	△407	△20.1	△1.2

- 회계법인 전체 영업비용은 5조 5,399억원으로 전기보다 6,450억원(+13.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증가분(4,034억원)이 가장 큼

- 특히, 4대법인은 글로벌 멤버쉽 수수료(지급수수료) 증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출장비 증가,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인건비 외 영업비용도 전기보다 1,480억원(+19.5%) 증가

<회계법인 영업비용>

(단위 : 억원, %)

구분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영업 비용 (a)	인건비 (b)	영업 비용 (A)	인건비 (B)	영업 비용 (A-a)	인건비 (B-b)
등록법인(41사)	37,534	26,326	42,703	29,467	5,169(13.8)	3,141(11.9)
4대법인	24,411	16,802	27,875	18,786	3,464(14.2)	1,984(11.8)
4대법인외(37사)	13,123	9,524	14,828	10,681	1,705(13.0)	1,157(12.1)
일반법인	11,415	6,756	12,696	7,649	1,281(11.2)	893(13.2)
전체회계법인	48,949	33,082	55,399	37,116	6,450(13.2)	4,034(12.2)

\* ( )는 전기대비 증감률

### 3. 외부감사 수행실적

※ 218\*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중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임의감사 등 제외) 보고내용 분석

\* 23.3월말 기준 220개사 중 정후('23.1월부터 사업 개시), 바로('22.12월 설립 되었으며, 9월말 법인) 제외

가. 외부감사 수행실적 : 총 32,478건 (+12.6%)

□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3,626건 증가(+12.6%)하였고,

-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은 총 4,883건으로 전기보다 432건 증가(+9.7%)

□ 4대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재무제표 4,269건, 연결재무제표 1,413건으로 전기 대비 개별은 188건(+4.6%) 증가하고, 연결은 65건(+4.8%) 증가

- 전반적인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증가로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도 모두 증가

\* 한영 +62사, 삼정 +56사, 삼일 +53사, 안진 +17사

□ 한편, 등록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 18,969건, 연결 4,136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4%, 84.7%이며 전기(60.2%, 85.7%) 대비 소폭 감소

## &lt;회계법인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gt;

(단위 : 건, %, %p)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증감률	상장*	증감률
전체	개별	26,969	2,398	28,852	2,476	32,478	2,560	3,626	12.6	84	3.4
	연결	4,240	1,822	4,451	1,883	4,883	1,975	432	9.7	92	4.9
4대 법인	개별	3,907	735	4,081	801	4,269	809	188	4.6	8	1.0
	(점유율)	(14.5)	(30.7)	(14.1)	(32.4)	(13.1)	(31.6)	(△1.0)	-	(△0.8)	-
	연결	1,256	634	1,348	674	1,413	690	65	4.8	16	2.4
	(점유율)	(29.6)	(34.8)	(30.3)	(35.8)	(28.9)	(34.9)	(△1.3)	-	(△0.9)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나. 평균감사보수 : 50백만원 (등록법인 74백만원, 4대법인 187백만원)

□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4.0%)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이는 감사투입시간의 증가, 자산규모가 큰 회사에 대한 감사가 전기보다 증가\*하는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회사 증가(+14사, +3.5%)

- 4대법인의 감사보수 상승률(8.9%)이 전년(6.0%)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新외감법 도입 직후와 비교하여 안정화되는 추세\*

\* 전기대비 감사보수 증가율 : 21.6%(FY19) → 21.2%(FY21) → 3.1%(FY21) → 4.0%(FY22)

## &lt;회계법인 외감대상회사 평균감사보수&gt;

구 분	FY20	FY21	FY22	증감률
외감법감사 매출액(억원)	12,487	13,770	16,115	17.0%
등록법인	10,813	11,957	13,960	16.8%
4대법인	6,326	7,003	7,976	13.9%
감사실적(건)	26,969	28,852	32,478	12.6%
등록법인	16,527	17,383	18,969	9.1%
4대법인	3,907	4,081	4,269	4.6%
평균감사보수 (백만원)	46.3	47.7	49.6	4.0%
등록법인	65.4	68.8	73.6	7.0%
4대법인	161.9	171.6	186.8	8.9%

#### 4.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 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60건
  - 이 중 19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되어 총 393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 344억원(안진, 일성·티브로드·한국수력원자력 관련), 35억원(삼정, STX조선해양 관련) 등
- ☐ 한편, '22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총 95건\*이며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07억원, 유양디앤유(한영) 68억원, STX조선해양(삼정) 5.7억원(주) 등
  - 주) 법원은 최근 집단소송 허가결정('23.10.18)
  - 소송금액은 5,243억원으로 전기보다 651억원 감소

##### <회계법인 소송현황>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3년누계
종결	민사소송건수(피소종결건)	17	21	22	60
	- 패소(일부패소 포함)	6	5	4	15
	- 화해 등	1	1	2	4
	- 승소(기각, 각하 포함)	10	15	16	41
	손해배상금액(억원)	5	4	386	395
진행	소송건수	124	115	95	
	소송금액(억원)	9,592	5,894	5,243	

#####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 '22사업연도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 7,769억원으로, 책임보험 2조 2,301억원(80.3%), 손해배상준비금 4,548억원(16.4%), 손해배상공동기금 920억원(3.3%)으로 구성
-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전기대비 증가(1,101억원, +4.1%)하였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 FY2020 22,987억원 → FY2021 26,668억원 → FY2022 27,769억원
  - 이는 4대법인이 달러로 약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환율 상승\*, 매출액 증가에 따른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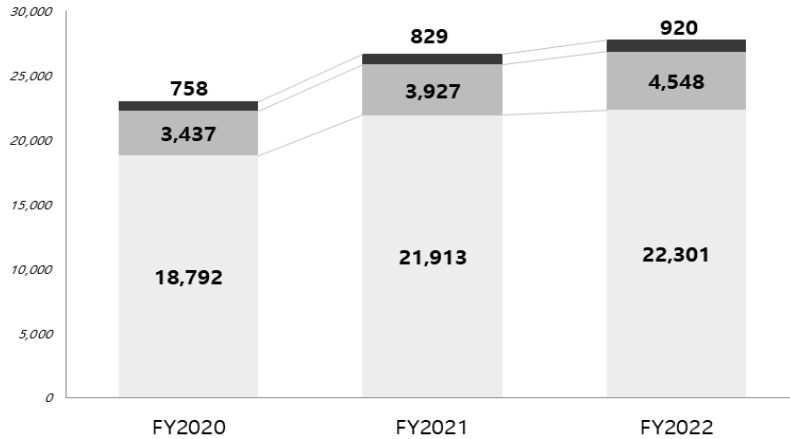


배상준비금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약정달러 평균) FY2021 1,260.6원/달러 → FY2022 1,311.3원/달러 등 평균 4.0% 상승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추이>

(단위 : 억원) ■ 손해배상책임보험 ■ 손해배상준비금 ■ 손해배상공동기금



- 그 중 4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2조 927억 원으로 전체의 75.6%에 해당
- 감사보수 총액 대비 손해배상 준비재원 설정비율은 4대법인은 262.4%\*로 4대 이외 등록 회계법인(86.1%)\*\*과 큰 차이를 보임

\* (2조 927억 원/7,976억 원) × 100 / \*\* (5,150억 원/5,984억 원) × 100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단위 : 억원, %)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손해배상책임보험	18,792	21,913	22,301	388	1.8
	손해배상준비금	3,437	3,927	4,548	621	15.8
	손해배상공동기금	758	829	920	91	11.0
	합 계	22,987	26,668	27,769	1,101	4.1
4대 법인	손해배상책임보험(비중)*	16,032(85.3)	17,929(81.8)	18,682(83.8)	753	4.2
	손해배상준비금(비중)*	1,677(48.8)	1,876(47.8)	2,192(48.2)	316	16.8
	손해배상공동기금(비중)*	50(6.6)	51(6.2)	53(5.8)	2	3.9
	합 계(비 중)*	17,758(77.3)	19,857(74.5)	20,927(75.4)	1,070	6.0

\* ( )는 전체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중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5. 기타 정보

- ※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 사업연도로부터 이사보수,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신규 공시사항 확대

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사 : 총 198명, 평균 8.2억원

- 2022사업연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는 31개 회계법인 소속 총 198명으로, 이 중 4대법인이 132명(66.6%)
  - 전체 회계법인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사의 보수 평균은 약 8.2억원이며, 삼일이 52명으로 최다 인원을 공시

### < 회계법인 이사보수 공시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등록 회계법인						일반 법인	합계
	4대법인					4대법인외 (37사)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소계			
인원	52	40	24	16	132	56(18)	10(9)	198
총액	453.6	308.2	211.3	146.0	1,119.0	400.2	96.1	1,615.3
평균	8.7	7.7	8.8	9.1	8.5	7.1	9.6	8.2

\* ( )는 법인수

나. 품질관리 예산 비중(평균) : 전체 예산의 3.2% (4대법인 3.3%)

- 등록법인이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3.2%\*이며, 이 중 4대법인은 평균 3.3%로 전기(3.7%)에 비해 감소
  - \*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
  - 전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예산은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담당직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1~3% 수준

## II

## 시사점

① 회계법인 매출은 증가추세이나 영업이익은 큰 폭 감소

- 新외감법 시행 및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 등으로 외부감사부문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감사부문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 전체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한편,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



\* 인건비 : 33,082억원(FY21) → 37,116억원(FY22)

\*\* 영업이익 : 1,787억원(FY20) → 2,023억원(FY21) → 1,616억원(FY22)

- 향후 회계법인의 수익성 감소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

## ② 회계법인의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저연차 회계사가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 수습회계사의 89.2%가 근무
- 숙련도 부족에 따라 회사의 수검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일부 민원제기도 있어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③ 부실감사 관련 책임 확대

-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지속 제기되고 실제 부실감사관련 책임이 현실화 됨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배상능력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 ④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4대법인의 증가율\*이 높았음
  - \* 4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 전년대비 증가율 : 8.9%
-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⑤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품질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바, 충실하고 정확한 작성·공시 필요
- 특히, 외주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등을 하는 경우 주석공시를 정확히 할 필요\*
  - \* 과거 지적사례 : 회계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기업 관련 자금대여, 채권·채무잔액, 매입내역 등을 주석으로 미공시

## ⑥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무 수행시 위험평가 등 점검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중 비중은 2021회계연도부터 감사부문 매출비중을 상회
  - \* FY22 부문별 매출비중 : 경영자문 35.2%, 감사 33.9%, 세무 27.7%
-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 국세청, 2023. 11

##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3.12.1.(금)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 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 등을 안내

###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요

- 일 시: '23.12.1.(금)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참석자: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등
- 주 최: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설명회 세부 일정은 (붙임) 참조

## II 주요 내용

### ① K-IFRS 주요 개정내용

-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24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



**②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3년에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 안내
- \* 회계 이슈에 대해 제공한 공식의견 및 수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한 중요 결정사항을 포함

**③ '23년 질의회신 사례**

-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23년 중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
- \*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사업부 처분 시 회계처리 등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소개**

-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을 법규화\*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24.1.1.부터 시행 예정)과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안)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

**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FAQ**

- '23년부터 외부감사가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 관련 일반사항, 설계·운영, 평가 방식, IT 관련 사항 등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안내
- \*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대상

**⑥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
-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